

1 개요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의 주화(呪花) 관장신인 이공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빈부차를 극복하고 혼인한 사라도령과 원강아미가 아이를 가졌을 때, 사라도령이 꽃감관 벼슬을 살러가게 되어 원강아미도 함께 나섰으나 도중에 재인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할락궁이를 낳고 길렀는데, 할락궁이가 탈출하여 부자상봉하고 주화를 얻어 재인장자를 멸족시켜 복수하였다.

2 내용

한 마을 친구인 임진국과 김진국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고민이었다. 임진국은 아이를 얻기 위하여 불공을 드리기로 하고 김진국에게 함께 하자고 권했다. 김진국은 워낙 가난하여 불공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어서 임진국이 대신 제물을 차려 주기로 하고 함께 불공을 드렸다.

둘은 사이좋게 딸, 아들을 얻어 장래 사돈이 되기로 약속하였다. 임진국은 정성이 모자라 딸 원강아미를 얻고, 김진국은 아들 사라도령을 얻었다. 원강아미가 자라자 임진국은 사라도령이 가난하다며 혼인 약속 지키기를 거부하였다. 원강아미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하여 둘은 마침내 혼인을 하고 원강아미는 곧 임신을 하였다.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의 꽃감관 벼슬을 하러 가게 되어 둘은 이별할 위기에 처하였다. 원강아미가 임신한 몸을 이끌고 따라 나섰으나 도중에 지쳐 함께 갈 수가 없어 재인장자의 종이 되어 남았다. 원강아미는 거둬진 재인장자의 동침 요구를 받았으나, 갇은 핑계로 재인장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할락궁이를 낳아 길렀다. 할락궁이를 낳고 난 뒤에는 재인장자의 요구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원강아미는 재차 핑계를 대어 재인장자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참다못한 재인장자로부터 할락궁이와 함께 갇은 벌역을 당하였다. 자신의 내력을 눈치 챈 할락궁이가 원강아미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캐묻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할락궁이는 재인장자의 추격을 피하여 서천꽃밭에 이르러 서천꽃밭에 흠뻑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라도령을 만나 부자지간임을 확인하였다.

사라도령은 원강아미가 재인장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을 할락궁이에게 알려주고 온갖 주화를 건네며 원수를 갚으라고 하였다. 할락궁이는 재인장자에게 돌아가 주화로 멸족시키고 죽은 원강아미를 살려내고, 원강아미를 인도하여 서천꽃밭으로 갔다.

3 특징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제주 무속에서는 이공본풀이는 ‘꽃불리’라고 하여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와 함께 무속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신화로 매우 중요시 한다. 할락궁이는 어머니 원강아미에게 온갖 괴롭힘을 가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재인장자를 서천꽃밭의 꽃으로 멸족시키는 복수를 하고 죽은 어머니를 살려 내었다. 서천꽃밭의 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그 밖에도 다양한 주술적 힘을 지녔으나 핵심은 이 두 가지에 있다.

4 핵심어

임진국, 김진국, 사라도령, 원강아미, 할락궁이, 서천꽃밭, 꽃감관, 재인장자, 부자상봉, 주화, 멸족

5 원전 서지사항

이공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